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가의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의 제문제 고찰*

윤 재 석**

(e-mail : jsyun@hanbat.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7. 행의 번역 순서 변경 |
| 2. 다쿠보쿠 단가의 번역 현황 | 8. 문맥을 고려한 의역 |
| 3. 음수율 문제 | 9. 다쿠보쿠 연구사를 고려한 번역 |
| 4. 어휘의 행간 이동 | 10. 한국어의 전통 음율인 3-4조 번역 |
| 5. 감정 표현은 ‘-네’, 상황설명 또는 묘사는 ‘-다’ | 11. 맺음말 |
| 6. 주석에 의한 부연 설명 | |

キーワード : 短歌(Tanka), 翻訳(Translation), “一握のすな”(Ichiakunosuna), 5-7-5-7-7調 (5-7-5-7-7 syllable system), 韻律(prosody)

1. 들어가며

본고는 줄역“이시카와 다쿠보쿠 시가선”¹⁾에 게재된 단가를 번역하며 고심했던 문제들에 대한 기록이다. 부연하면, 다쿠보쿠의 단가를 번역하며 직면한 음수율, 어휘의 선택, 고유명사의 처리, 문맥을 고려한 어휘의 행간 이동, 시제, 감정표현과 상황설명의 구별, 다쿠보쿠 연구사를 고려한 번역, 행의 번역 순서, 문맥을 고려한 의역 등의 문제를 기록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다쿠보쿠의 단가가 다수 번역되어 있다. 보통, 번역은 창작의 영역이라 하기에, 번역자의 개성과 언어 감각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번역이 가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한밭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지식올만드는지식, 2019.

능하리라 생각된다. 천차만별의 영역이기에 번역상의 문제를 다룬 논문은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창작의 영역인 번역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에서 다쿠보쿠의 단가는 여러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번역자간의 비교 고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 고찰은 앞으로 다쿠보쿠의 단가 번역의 객관성을 보충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의 번역 대상 텍스트는 “한줌의 모래”이다.

2. 다쿠보쿠 단가의 번역 현황

현재, 한국에서 다쿠보쿠의 단가를 번역한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1) 김용제편역 “石川啄木詩歌集 혼자 가리라”

이 번역서는 한국 최초의 다쿠보쿠의 단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서는 역자가 가이조샤(改造社)출판의 “이시카와 다쿠보쿠 전집” 5권 중에서 제3권 시가집을 원본으로 하여 ‘시 百五十편에서 四十五편, 단가 千五百八十수에서 三百二十五수를 추려서’²⁾ 번역한 것이다. 역자는 ‘나는 이 단가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그대로 살리는 동시에 정형시의 생명인 리듬(音律-원시의 ㄹ ㄹ 五·七·五·七·七조를 우리 말에도 그대로의 음수순(音數順)으로 살려서 三十一자(字)로 옮기는데 흥미있는 노력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³⁾

이것은 역자가 단가의 음수율을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 고민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단가가 한국어 시로 변환됨에 있어 자연스러운 한국어보다는 단가의 음수율을 어떻게 전해주느냐가 중요했던 시기인지도 모른다.

2) 오영진역 “石川啄木歌集 한 줌의 모래(一握の砂), 슬픈 장난감(悲しき玩具)”

상단에 일본어 원문, 하단에 한국어 번역문 배치의 한일 대역본이다. 역자는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번역 의도와 번역 방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2) 김용제역(1960) 『石川啄木詩歌集 혼자 가리라』 신태양사, p.6.

3) 전계서, 김용제(1960) p.7.

‘여기에 이시가와다쿠보쿠의 노래(와까체 五七五七七조)삼천팔백 여수 중 “한줌의 모래”의 오백오십일수와 “슬픈 장난감”의 백구십사수 도합 칠백사십 오수를 소개한다. -중략- 나 혼자 보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생각에 나 나름대로 번역을 해 보던 중 기왕이면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역보다는 직역식 방법을 택하면서 역문의 부족점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원문을 그대로 수록 대역하였다. 따라서 극히 몇 예를 제외하고서는 글자수, 어순, 배열 등을 그대로 살리도록 노력하였다.’⁵⁾

역자가 ‘극히 몇 예를 제외하고서는 글자수, 어순, 배열 등을 그대로 살리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듯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글자 수’ 즉 음수율에 고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황성규역“石川啄木の 명시감상100선”

이 역서는 한일 대역본으로 “한줌의 모래”에서 100수의 단가를 선정하여 이와키 유키노리의 해석과 감상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발간에 즈음하여’에 ‘이 책을 번역함에 있어서 일본어로 된 5·7·5·7·7調를 우리 한글로 맞추다 보니 무리가 간 곳도 많이 있다. 본문의 뜻이나 詩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앞으로 더욱 연구함으로써 한일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더욱 발전시켜보려 한다.’⁶⁾라고 밝히고 있다.

4) 황성규역“다쿠보쿠 대표시선집 슬픈 장난감”

이 역서는 “한줌의 모래”에서 129수, “슬픈 장난감”에서 29수를 선정하여, 이와키 유키노리의 해석과 감상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다쿠보쿠의 시집을 번역할 때, 일본의 단가 형식인 5·7·5·7·7調를 따르려다 보니 본문의 뜻이나 시정(詩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미리 구한다’⁷⁾라고 밝히고 있다.

5) 손순옥역 “이시카와 타쿠보쿠 시선”

이 역서는 한일 대역본으로 ‘단가에서는 특별히 5-7-5-7-7의 음수율을 갖는

4) 원문 그대로 옮김.

5) 오영진역(1976) 『石川啄木歌集 한 줌의 모래(一握の砂), 슬픈 장난감(悲しき玩具)』 장문사, p.4.

6) 황성규역(1994) 『石川啄木の 명시감상100선』 시사일본어사, p.4.

7) 황성규역(1996) 『타쿠보쿠 대표시선 슬픈 장난감』 한국문원, p.8.

일본 단가체의 정형을 한국어로도 살렸으며 노래의 주제가 독자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번역의 초점을 맞추었다.⁸⁾라고 밝히고 있다.

6) 엄인경역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가집 한중의 모래”

한일 대역본으로 “한중의모래” 551수를 완역한 것이다. 단가의 음수율 5-7-5-7-7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단가의 음수율을 견지한 이유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영진의 완역 이래 두 번째 완역집이다.⁹⁾

7) 엄인경역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가집 슬픈 장남감”

한일 대역본으로 “슬픈 장남감” 194수를 완역한 것이다. 단가의 음수율 5-7-5-7-7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단가의 음수율을 견지한 이유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영진의 완역 이래 두 번째 완역집이다.¹⁰⁾

8) 필자역 “이시카와 다쿠보쿠 시가선”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문학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시와 단가를 선별하여 번역한 것으로, 한일 대역본이다.

선행의 번역서가 단가의 음수율 5-7-5-7-7에 맞추어 한국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이 역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유사하다고 해도 어휘의 글자 수까지 유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번역을 한 것이다. 오히려 한국어 시로써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의 음수율인 3-4조를 살리는 방향에서 번역을 시도한 것이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번역된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단가는 줄역 이외에는 전부가 단가의 음수율인 5-7-5-7-7조를 맞추려고 고심한 역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성규가 ‘이 책을 번역함에 있어서 일본어로 된 5·7·5·7·7調를 우리 한글로 맞추다 보니 무리가 간 곳도 많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무리’가 있음에도 단가가 갖는 정형성을 살리기 위한 시도라 생각

8) 손순옥역(1998) 『이시카와 다쿠보쿠 시선』 민음사, p.152.

9) 엄인경역(2017)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가집 한중의 모래』 필요한책, p.12.

10) 엄인경역(2018)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가집 슬픈 장남감』 필요한책, p.6.

11) 필자역(2019) 『이시카와 다쿠보쿠 시가선』 지식올만드는지식, p.195.

되며 그 나름대로의 의미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형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의 의미나 한국어에 부적합한 운율이 채택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음수율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측면이 있다.

3. 음수율 문제

단가를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부분은 5-7-5-7-7 조의 음수율일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단가는 필자의 역서를 제외하고,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5-7-5-7-7 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단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형성을 원문 그대로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 수나 어휘의 구조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일본어의 한국어 번역에는 자연스럽게 못한 부분이 발생한다.

먼저, 다쿠보쿠의 단가집 “한줌의 모래(一握の砂)”의 첫 번째 단가인 ‘東海の 小島の磯の白砂に / われ泣きぬれて / 蟹とたはむる’¹²⁾를 보자.

이 단가의 번역을 전술한 번역서의 간행 연도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제역) 동해 바다의 조그만 섬의 하얀 모래밭에서 / 나는 눈물에 젖어 / 게 한 마리와 논다 ¹³⁾ (5-7-5-7-7)

오영진역) 동해의 작은 섬 바닷가 흰 모래 위에 / 나 울어 젖어서 / 게와 노니느다¹⁴⁾(3-6-5-6-6)

황성규역) 동해바다의 자그마한 갯바위 하얀 백사장 / 나는 눈물에 젖어 / 게와 벗하였도다 ¹⁵⁾ (5-7-5-7-7)

손순옥역) 동해바다의 자그만 갯바위 섬 하얀 백사장 / 나는 눈물에 젖어 / 게와 벗하였도다 ¹⁶⁾ (5-7-5-7-7)

12) 단가의 원문이 3행 띄어쓰기로 되어 있으며, 번역자들도 그대로 3행 띄어쓰기로 번역하고 있다.

13) 전계서, 김용제(1960) p.83.

14) 전계서, 오영진(1976) p.17.

15) 전계서, 황성규(1996) p.11.

엄인경역) 동쪽 바다의 조그만 섬 바닷가 백사장에서 / 나 울다 젖은 채로 /
 계와 어울려 노네¹⁷⁾ (5-7-5-7-7)
 필자역) 동해의 작은 섬 하얀 모래사장 / 나 슬퍼 눈물 흘리며 / 계와 난치네¹⁸⁾
 (3-3-6-8-6)

김용제, 황성규, 손순옥, 엄인경은 5-7-5-7-7 조로 번역하였고, 오영진, 필자는 단가의 5-7-5-7-7 조를 지키지 않고 번역하였다.¹⁹⁾ 음수율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원문의 내용과 정형성 또는 서정성 등을 살리고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황성규, 손순옥의 경우 5-7-5-7-7 조를 맞추기 위해 ‘(황성규) 자그마한 갯바위 하얀 백사장’, ‘(손순옥) 자그만 갯바위 섬 하얀 백사장’에서 보듯이 ‘하얀 백사장’과 같은 오류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직역하면 ‘하얀 하얀 모래 사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단가의 5-7-5-7-7 조를 맞추기 위한 고심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한줌의 모래(一握の砂)”의 제 8 수 째 단가이다.

‘いのちなき砂の悲しさよ / さらさらと / 握れば指のあひだより落つ’

엄인경은 이 단가를 ‘생명이 없는 모래의 슬픔이여 / 사르르 사락 / 쥐어 보면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져’와 같이 번역하였다.²⁰⁾

그런데, 2 행의 ‘사르르 사락’의 경우 ‘사락’을 추가한 것은 음수율 5 음을 맞추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라 생각된다. 필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사르르’를 대신할 수 있는 5 음의 한국어는 없다. 어쩌면 엄인경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사르르’인 3 음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번역서 전체적인 흐름인 5-7-5-7-7 조를 맞추기 위해 ‘사르르’에 어울리는 ‘사락’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

16) 전계서, 손순옥(1998) p.86.

17) 전계서, 엄인경(2107) p.15.

18) 전계서, 윤제석(2019) p.88.

19) 오영진의 번역은 이 단가의 경우는 예외이나 번역서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부분의 단가가 5-7-5-7-7 조로 번역되어 있다.

20) 전계서, 엄인경(2017) p.18.

엄인경의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가집 한줌의 모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5-7-5-7-7 조로 번역된 완역본이라 할 수 있다. 풍부한 한국어 어휘력을 바탕으로 어휘의 조탁력을 발휘한 다쿠보쿠 단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역서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해 본다. ‘사르르’에 어울리는 신조어 느낌의 시각에서 보면 의미있는 발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락’은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휘라 할 수 있다. ‘사락’으로 독립되어 사용되는 사례는 없다. ‘무엇이 가볍게 쏠리거나 맞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 또는 그런 소리를 자꾸 내다’의 의미로 ‘사락대다, 사락거리다’와 같이 쓰인다. 보통 ‘밤새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 ‘짜락눈이 사락사락 뿌렸다’와 같이 쓰인다.²¹⁾

이상과 같이 단가의 5-7-5-7-7조를 살린 번역에 부분적인 문제라 할 수는 있으나 무리가 야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의 전통음인 5,7음에 3,4음인 한국어를 맞추려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의미와 음율을 어색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된다.

4. 어휘의 행간 이동

본래 단가는 1 행쓰기인데, 타쿠보쿠는 3 행으로 구분하여 단가를 지었다. 3 행 쓰기로 구분하여 각 행이 갖는 구체적인 시적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행쓰기를 하여도 그 의미나 운율에 어색함 없이 시적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시인의 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강조할 부분은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3 행쓰기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색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로, ‘類につたふ / なみだのごはず / 一握の砂を示し人を忘れず’를 보자. 선행의 한국어 번역은 원문 그대로 3 행쓰기를 따르고 있다. 예를 보면,

불에 흐르는 / 눈물 닦지 않은 채 / 한 줌의 모래를 움켜 보인 사람을
못 잊는다 ²²⁾ (오영진역)

그러나, 한국어 운율과 의미를 고려할 때, ‘불에 흐르는 눈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원시의 3 행쓰기를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21) ‘사락사락’ 『표준 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검색일: 2020.09.30).

22) 전개서, 오영진(1976) p.17.

3 행으로 번역하되 의미와 운율을 고려하여 어휘의 행간 이동을 시도하여 ‘ 불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고 / 한 줌의 모래를 내민 당신 잇을 수 없네.’²³⁾로 번역하였다.

다음도 같은 경우이다.

いと暗き / 穴に心を吸はれゆくごとく思ひて / つかれて眠る 19

‘짙은 어둠 속으로 /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 피곤한 채로 잠이 든다’로 번역하였다. 즉, 즉 2행의 ‘穴に’를 1행으로 가져와 ‘짙은 어두운 구멍 속으로’로 직역할 수 있으나, ‘어두운 구멍 속’의 어감이 좋지않다고 생각되어 같은 의미의 ‘어둠 속으로’로 번역하였다.

참고로 엄인경은 원문의 행과 의미를 그대로 중시하여

‘몹시 어두은 / 구멍 속으로 마음이 빨려드는 듯이 여겨져 / 피곤해 잠이 든다’²⁴⁾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5. 감정 표현은 ‘-네’, 상황설명 또는 묘사는 ‘-다’

3행의 마지막 서술어를 번역 할 때, ‘-네’가 어울리는지 ‘-다’가 어울리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번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 표현은 ‘-네’로, 상황설명 또는 묘사는 ‘-다’로 번역하였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東海の小島の磯の白砂に / われ泣きぬれて / 蟹とたはむる

동해의 작은 섬 하얀 모래사장 / 나 슬퍼 눈물 흘리며 / 게와 장난치네²⁵⁾(필자)

‘東海の小島の磯の白砂に 동해의 작은 섬 하얀 모래사장’은 상황에 대한 묘사이며, ‘われ泣きぬれて 나 슬퍼 눈물 흘리며’는 감정표현이라 생각되어, 이에 이어지는 ‘蟹とたはむる’는 ‘게와 장난치네’로 번역하였다.

23) 전계서, 윤재석(2019) P.89.

24) 전계서, 엄인경(2017) p.24.

25) 전계서, 윤재석(2019) p.88.

いのちなき砂の悲しさよ / さらさらと / 握れば指のあひだより落つ
생명 없는 모래의 슬픔이여 / 사르르 / 손에 쥐면 손가락 사이로 떨어
진다 26)(필자)

‘いのちなき砂の悲しさよ 생명 없는 모래의 슬픔이여’는 감정표현이고, ‘---指のあひだより落つ 손가락 사이로 떨어진다’는 상황묘사로 생각되어, ‘떨어진다’로 번역하였다.

다음의 단가도 마찬가지로이다.

頬につたふ / なみだのごはず / 一握の砂を示し人を忘れず
볼에 흐르는 눈물을 / 닦으려 하지 않고 / 한 줌의 모래를 내민 당신 잊을
수 없네 27)(필자)

‘頬につたふ なみだのごはず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고’는 상황설명이라 생각되며, ‘人を忘れず’는 감정표현이라 생각되어, ‘당신 잊을 수 없네’로 번역하였다.

6. 주석에 의한 부연 설명

번역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를 달아 부연 설명을 하였다.

ふと深き怖れを覚え / ちつとして / やがて静かに臍をまさぐる 33
‘갑자기 심한 공포를 느껴 / 가만히 있다가(주: 움직이지 못하다가) / 겨우 배꼽을 만지작거린다’ 28)(필자)

ころざし得ぬ人人の / あつまりて酒のむ場所が / 我が家なりしかな 329
(주: 재능을 갖고도) 뜻을 이루지 못한 친구들이 / 모여 술 마시는 장소가 / 우리 집이었네 29) (필자)

26) 전계서, 윤재석(2019) p.90.

27) 전계서, 윤재석(2019) p.89.

28) 전계서, 윤재석(2019) p.94.

29) 전계서, 윤재석(2019) p.132.

2행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1행에 ‘재능을 갖고도’와 같이 어휘상 문맥상 이해를 위해 부연 설명을 한다.

7. 행의 번역 순서 변경

행과 행의 번역 순서를 바꾸어 번역함으로써 자연스런 순차적 문맥이 되도록 하였다. 다음은 “한줌의 모래” 373 번째 단가이다.

今夜こそ思ふ存分泣いてみむと / 泊りし宿屋の / 茶のぬるさかな 373
 오늘밤이야 말로 실컷 울어보려고 / 머무른 여관의 녹차 / 미지근하네 30)
 (필자)

원문의 1행(5-7-5음) ‘今夜こそ思ふ存分泣いてみむと’, 2행 7음‘泊りし宿屋の’, 3행 7음‘茶のぬるさかな’으로 단가의 기본 음수율 즉 5-7-5-7-7조가 잘 지켜져 있다.

그러나 번역의 경우 원시 그대로 즉 1행의 5-7-5음, 2행의 7음, 3행의 7음을 그대로 번역하면, 1행 ‘오늘밤이야 말로 실컷 울어보려고’, 2행 ‘머무른 여관의’, 3행 ‘녹차 미지근하네’가 된다. 따라서 3행의 녹차를 2행으로 가져와 ‘여관의 녹차’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 운율상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단가도 행간 이동을 하여 번역하였다.

2-3-1 행순
 ころよき疲れなるかな / 息もつかず / 仕事をしたる後のこの疲れ 66
 숨도 쉬지 않고 / 일을 마친 후의 이 피곤함 / 기분 좋은 피곤함이네 31)
 (필자)

3-1-2행순
 ものなべてうらはかなげに / 暮れゆきぬ / とりあつめたる悲しみの日は 259
 이런 저런 슬픔이 겹친 날은 / 세상 모든 일이 덧없이 느껴지며 / 해가 저
 물어 갔다 32) (필자)

30) 전계서, 윤재석(2019) p.140.

31) 전계서, 윤재석(2019) p.103.

32) 전계서, 윤재석(2019) p.123.

8. 문맥을 고려한 의역

다음은 “한줌의 모래” 293 번째 단가이다.

思ふてふこと言はぬ人の / おくり來し / 忘れな草もいちじろかりし 293
마음을 밝히지 않은 그 사람이 / 보내 온 / 물망초 보며 그의 마음 알
았네
(필자)

3 행을 직역하면 ‘물망초가 유난히 눈에 띈다’로 어휘의 의미 전달에 그치는 느낌이 든다. ‘마음을 밝히지 않은 그 사람’을 강조하고 그 애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 마음을 알았네’와 같이 의역하였다.

다음의 361,364번 단가도 의역으로 번역하였다.

子を負ひて / 雪の吹き入る停車場に / われ見送り妻の眉かな 361
아기를 업고 / 눈보라 치는 기차역에서 / 날 배웅하던 아내의 눈썹이 그
립네 33)
(필자)
みぞれ降る / 石狩の野の汽車に読みし / ツルゲエネフの物語かな 364
진눈깨비 내리는 / 이시카리 들판을 달리던 기차에서 읽었던 / 츠르게네
프34)의 소설이 생각나네 (필자)

361 번의 3 행 ‘妻の眉かな’를 직역하면 ‘아내의 눈썹이네’ 이지만 그 눈썹이 그립다의 의미이므로 ‘눈썹이 그립네’로 번역하였다.

364수는 홋카이도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2행의 ‘기차에서 읽었던 ‘物語(모노가타리) 즉 소설을 읽던 추억에 방점을 두어 직역 ‘츠르게네프의 소설이네’ ’를 ‘츠르게네프의 소설이 생각나네’로 번역하였다.

9. 다쿠보쿠 연구사를 고려한 번역

160 번째 단가 ‘かなしみといはばいふべき / 物の味 / 我的嘗めしはあまりに早かり

33) 전개서, 윤재석(2019) p.137.

34) 19세기 활동한 러시아의 문학자

160'를 보자. 이 단가에 대해 오영진, 엄인경은 ‘物の味’를 ‘세상의 맛’³⁵⁾ ‘세상살이 맛’³⁶⁾으로 번역하였다. 문맥에 어울리는 어휘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³⁷⁾ 이와키 유키노리가 ‘사랑을 알고 문학이나 인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소년 시절의 불안과 애수를 읊고 있다. 그것이 너무나 이른 까닭에 현재의 불행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한이 결구의 “너무나 빨랐네 (あまりに早かり)”에 담겨 있다’³⁸⁾라고 해석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物の味’는 다쿠보쿠가 후의 아내 ‘세쓰코’와 사춘기에 나눈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설도 있다.³⁹⁾ 필자는 이에 의거, 단정할 수 없는 ‘物’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사랑의 애절함’에 방점을 두어 ‘슬픔이라면 슬픔이지 / 사랑의 애절함을 / 나는 너무 일찍 맛보았네’⁴⁰⁾와 같이 번역하였다.

10. 한국어의 전통 음율인 3-4 조 번역

필자는 단가의 5-7-5-7-7조를 맞추기 위해 한국어를 무리하게 조탁하기 보다는 한국어의 전통 음율인 3-4조를 고려하여, 3음 또는 4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377번째 단가 ‘寂寞を敵とし友とし / のなかに / 長き一生を送る人もあり’를 보자. 3행의 ‘長き一生を’를 처음에는 ‘기나긴 생을’ 또는 ‘기나긴 일생을’로 번역하였으나, 3-4조를 고려하여 ‘기나긴 한평생을’로 번역하였다. 전문을 보면, ‘적막감과 싸우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 눈 속에서 / 기나긴 한평생을 보내는 이도 있네’⁴¹⁾와 같다.

다음은 417번째 단가 ‘さりげなく言ひし言葉は / さりげなく君も聴きつらむ / それだけのこと’이다. 1행의 ‘言ひし言葉は’에 대해, 처음에는 ‘전해준 말은’으로 번역하였

35) 전계서, 오영진(1976) p.57.

36) 전계서, 엄인경(2017)주9) p.97.

37) 슬픔 일이라 하려면 할 수 있는 / 세상살이 맛 / 내가 맛본 시기는 너무도 일렀구나 (엄인경역)
슬픔이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 세상의 맛 / 내가 맛본 물정은 빨랐느니(오영진역)

38) 岩城之徳(1985) 『啄木歌集全歌評釈』 筑摩書房、p.92.

39) 이에 대한 논증은 차후의 과제로 하겠다.

40) 전계서, 윤재석(2019) p.111.

41) 전계서, 윤재석(2019) p.142.

으나 3-4조를 고려하여 ‘건넌 말은’로 번역하였다. 전문은 ‘살며시 건넌 말은 / 당신도 살며시 들겠지 / 그저 그렇다는 것이다’⁴²⁾와 같다.

다음의 단가도 3-4조를 고려한 사례이다.

いのちなき砂の悲しさよ / さらさらと / 握れば指のあひだより落つ 8
생명 없는 모래의 슬픔이여 / 사르르 / 손에 쥐면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네⁴³⁾
(필자)
たはむれに母を背負ひて / そのあまり軽きに泣きて / 三步あゆまず 14
장난삼아 업어 본 어머니 / 너무나 가벼워 눈물이 흘러 / 세 발자국도 못
걸었네 ⁴⁴⁾(필자)
はたらけど / はたらけど猶わが生活楽にならざり / ちつと手を見る 101
일 해도 / 일을 해도 여전히 내 생활 나아지지않네 / 물끄러미 손바닥
쳐다보네 ⁴⁵⁾(필자)
いつしかに / 情をいつはること知りぬ / 鬚を立てしてもその頃なりけむ 438
너무도 일찌감치 / 내 마음 속이는 법을 알았네 / 수염을 기른 것도 그
무렵이었지 ⁴⁶⁾ (필자)

11. 맺음말

다쿠보쿠의 단가를 번역하며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단가의 음수율 5-7-5-7-7조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현재, 필자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단가는 기본적으로 5-7-5-7-7조를 따르고 있다.⁴⁷⁾ 이것은 단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형성을 원문 그대로 나타내기 위한 노력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 수나 어휘의 구조 등이 유사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

42) 전계서, 윤재석(2019) p.149.

43) 전계서, 윤재석(2019) p.90.

44) 전계서, 윤재석(2019) p.91.

45) 전계서, 윤재석(2019) p.105.

46) 전계서, 윤재석(2019) p.155.

47) 와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단가의 5-7-5-7-7조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한국어역은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한국어역을 초래한다.

단가의 한국어역에 있어, 5-7-5-7-7조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역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적인 바와 같이 한국의 다쿠보쿠 단가 번역 현황을 고려할 때, 필자의 번역과 같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살린 번역이 시도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일률적인 번역 상황에 대한 하나의 소박한 이의제기이다.

또한, 창작의 영역이라 여겨지는 번역을 공론화 함으로써 번역의 객관성을 보충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논문의 제목에 시론(試論)이라고 부기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김용제역(1960) 『石川啄木詩歌集 혼자 가리라』 신태양사, pp.6-7, p.83.
 오영진역(1976) 『石川啄木歌集 한 줌의 모래(一握の砂), 슬픈 장난감(悲しき玩具)』 장문사, p.4, 7, 57.
 황성규역(1994) 『啄木名詩鑑賞100選』 시사일본어사, p.4.
 황성규역(1996) 『타쿠보쿠 대표시선 슬픈 장난감』 한국문원, p.8, 11.
 손순옥역(1998) 『이시카와 타쿠보쿠 시선』 민음사, p.86, 152.
 엄인경역(2017)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가집 한줌의 모래』 필요한책, p.15, 18, 24, 97.
 엄인경역(2018) 『이시카와 다쿠보쿠 단가집 슬픈 장난감』 필요한책, p.6.
 윤재석역(2019) 『이시카와 다쿠보쿠 시가선』 지식올만드는지식, pp.88-155.
 岩城之徳(1985) 『啄木歌集全歌評訳』 筑摩書房、p.92.
 ‘사락사락’ 『표준 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검색일: 2020.09.30)

논문 투고 일자 : 2020. 09.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20. 10. 28.

<要旨>

石川啄木の短歌の韓国語訳における諸問題点の考察

尹在石

啄木の短歌を翻訳する際、最も問題になったのは音数律である。短歌の音数率の5-7-5-7-7調を韓国語に生かせるかという問題だった。現在、韓国における啄木の短歌の翻訳状況を見入ると、筆者を除き、短歌の5-7-5-7-7調を一律的に韓国語にもそのまま生か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これは短歌の核心といえる定型性を表すための工夫であると考えられる。こういった背景には韓国語と日本語の音節数や語彙の構造などの類似性があると思われる。しかし、その類似性にもかかわらず、5-7-5-7-7調の一律的な韓国語訳は例は少ないかも知れないが、必ず不自然な韓国語訳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

短歌の韓国語訳において、5-7-5-7-7調を生かした方が望ましいかどうかは訳者の立場により異なると思われる。ただし、指摘したように韓国での啄木の短歌の翻訳状況を考慮すれば、筆者の翻訳のように自然な韓国語を生かした翻訳が試みられるのも意味があるのではないか。本稿はこのような韓国の翻訳状況に対する一つの素朴な疑問と改善の方策の提示に他にならない。また、創作の領域とされる翻訳を公論に付すことで、翻訳の客観性を補うための試みでもある。論文のタイトルに試論と付記した所以である。

A New Study on the Problems of Korean Translation of Takuboku
Ishikawa's Tanka

Yun, Jae-Seung

When translating Takuboku's Tanka into Korean, the number of syllables has been problematic.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5-7-5-7-7 syllable system of Tanka can be used in Korean. In relation to the translations of Takuboku's tanka in Korea today, it can be seen that except for me, the 5-7-5-7-7 syllable system of tanka is uniformly used by other Korean translators. This is considered to be an ingenuity to express the core system of tanka. It is thought that there are similarities in the number of syllables and the structure of vocabular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However, despite the similarities, the conventional translation of the Japanese 5-7-5-7-7 syllable system into Korean may result in unnatural translation in Korean.

Whether or not it is desirable to make use of the 5-7-5-7-7 system in Korean tanka translation depends on the translator's position. However, considering the existing translations of Takuboku's tanka 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to try to translate them using natural Korean like my translation. This article poses an objection to the conventional way of translation in Korea. It is also an attempt to supplement the objectivity of translation by rethinking translation in general, which is supposed to be creative. This is why the word "new" was added to the title of this article.